

6/26 총파업 현대차지부 기자회견문(안)

안녕하십니까? 현대자동차지부장 안현호입니다.

현대차지부는 4만 4천의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을 대표해서, 현대자동차 내부 노사간의 문제가 아닌 이유로 이 자리에 서서 파업을 선언합니다.

파업은 노동자들의 마지막 투쟁 수단입니다. 노동자들이 회사의 담벼락을 넘어서 노동을 멈춰야 할 만큼 지금의 상황이 암울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노동을 우리 한국 사회의 악으로 규정짓고, 부정부패의 표상으로 포장하고, 폭압적 탄압을 일삼고 있습니다.

양희동 열사는 죽음을 선택하면서 당신이 편한 선택을 한 것 같다고 울분을 토하며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왜 선량한 노동자가 죽음을 선택해야 합니까? 왜 죽음을 선택한 노동자가 남겨진 동지들에게 도리어 미안함을 느껴야 합니까?

윤석열 정권은 노동자를 탄압하고, 노동법을 개악하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국민이자 주인인 노동자들을 악랄하게 짓밟고 있습니다.

경제위기와 민생 파탄의 책임을 노동조합과 노동자에 돌리고
친재벌 지원과 감세 정책으로 국가재정을 파탄 내고 있습니다.
외교랍시고 우리의 미래산업 일자리를 팔아넘기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우리 밥상으로 끌어들이는 결정을 주저 없이 하려고
합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수산업자나 해산물, 횃집은 어떻습
니까? 소금값이 폭등하고 소금을 사재기합니다.

노동자·국민을 도탄에 빠뜨리고, 희망을 빼앗아 죽음으로 내
모는 정권을 우리 국민은, 우리 노동자는 더 이상 원하지 않습
니다. 18만 금속 노동자들이 그들의 피와 땀이자 삶인 일터를
멈춰 세우고 거리로 나섭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과 무능, 독선에 대한 우리 노동자들의
선택입니다. 우리 노동자들의 경고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제
그만 맞지 않는 옷을 벗어야 합니다.

현대자동차지부는 노동자를 짓밟고 있는 정권에 맞서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지부는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